



# ONE

음악을 좋아하는 거라면 오라노트 V2로 충분하다.

오라노트 V2는 한국의 에이프릴 뮤직에서 만드는 오디오다. 이 오디오의 기능은 올인원이란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다. 사진에서 보드시피 CD 플레이어 기능으로 시작해 FM라디오, 앰프, DAC, USB와 PC 연결에 블루투스 페어링도 된다. 다른 걸 다 떠나 이 모든 기능이 하나의 기기에 다 들어간 경우부터 많지 않다. 성능도 훌륭하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사운드스테이지 익스피리언스>도 이 물건을 크게 칭찬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조절하며 내가 좋아하는 음을 찾는 것도 훌륭한 취미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듣는 음악이 좋은 거라면 오라노트 V2 하나로도 충분하다. 설치가 쉽고 부피가 작고 소리가 좋으니까. 호사는 뭐든 하다 보면 끝이 없다. 자동차든 옷이든, 소리라는 모호한 영역도 마찬가지다. 오라노트 V2가 정말 눈에 띄는 이유는 이 물건이 최고가 아니라 이 물건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과잉이 넘치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 에디터 박찬용